

# ‘광주 수출 효자’ 기아 스포티지...30년 역사 담았다

### ‘30주년 에디션’ 연식 변경 모델 ‘더 2024 스포티지’ 본격 판매 편의·안전성 향상...6월 기준 전 세계 누적 판매 700만대 육박

광주에서 생산되는 기아의 대표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스포티지’가 올해 ‘서른 살’이 됐다. 기아는 출시 30주년을 맞은 스포티지의 ‘30주년 에디션’과 함께 연식 변경 모델인 ‘더(The) 2024 스포티지’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24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 따르면 스포티지는 지난 1993년 ‘세계 최초 도심형 SUV’ (Sport Utility Vehicle)라는 타이틀을 갖고 출시돼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광주지역 수출 효자 노릇을 푹푹하고 있는 스포티지는 1세대 모델이 출시된 1993년부터 올 6월 기준 스포티지의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은 699만 9300여대로,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이달 국내의 판매량을 더하면 누적 700만대를 넘어섰다. 이는 기아의 단일 차종으로는 최다 판매량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더 2024 스포티지’는 고객 선호 사양을 추가해 편의·안전성을 향상, 출시 30주년 기념을 기념해 디자인 고급감을 강화한 스페셜 트립 ‘30주년 에디션(30th Edition)’을 새롭게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스포티지 전 트림에 1열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를 신규 적용했으며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는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를 2열까지 확대 적용해 실내 정숙성을 더욱 향상했다.

또 동급 최초로 2열 사이드 에어백을 전 트림 기본 탑재해 ‘준중형 SUV 절대감자’의 명성에 걸맞



은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30주년 에디션은 기존의 시그니처 그래비티 모델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 완성도를 더했다.

기아는 기존 시그니처 그래비티 트림의 루프랙,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등에 적용된 유광 블랙 색상을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 및 전·후면 범퍼 하단 가니쉬 ▲도어 가니쉬 ▲18·19인치 휠까지 확대 적용해 강인한 느낌의 블랙 콘셉트를 구현했다.

또 30주년 에디션 전용 실내 색상인 그린과 블랙 2종을 운영하고 신규 휠링 패턴과 스웨이드의 적용 범위를 넓힌 가죽시트도 고급감을 극대화했다. 운전석과 조수석 헤드레스트에는 30주년 기념 로고를 탑재해 차별화된 가치를 선사한다.

더 2024 스포티지의 판매 가격은 ▲1.6 가솔린 터보 2537만~3417만원 ▲2.0 LPi 2601만~3481



기아가 국내 준중형 SUV 판매 1위 스포티지의 연식 변경 모델 ‘더(The) 2024 스포티지’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왼쪽은 내부 모습. (기아 제공)

만원 ▲2.0 디젤 2789만~3669만원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3213만~3831만원이다.

한편 기아는 스포티지 30주년 에디션의 출시에 맞춰 이를 기념하는 브랜드 필름을 공개하고 특별 전시를 진행해 고객들이 스포티지의 혁신적인 브랜드 가치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브랜드 필름은 1993년 출시된 스포티지의 ‘세계 최초 도심형 SUV’라는 혁신적인 브랜드 스피릿과 같은 해 출시된 음악계 혁신의 아이콘, 서태지의 대

표곡 ‘하여가’를 연계해 제작했으며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또 복합 브랜드 체험공간인 기아360에서는 오는 27일까지 스포티지 30주년 기념 전시를 운영한다. 각각 1993년, 2021년에 출시된 스포티지 1세대와 5세대 모델이 나란히 전시되며, 2세대(2004년), 3세대(2010년), 4세대(2015년)를 포함한 세대별 스포티지 모델 변천사를 담은 디지털 전시도 볼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스포티지는 1993년 출시 이래 꾸준한 고객의 사랑과 호평을 받아오며 준중형 SUV 시장의 핵심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30주년 기념 모델을 통해 스포티지의 혁신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강화하고, 그동안 쌓아온 스포티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준중형 SUV 시장의 1위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테라스에 있는 듯...현대차 싼타페 5세대 나와

### 5년만에 ‘더 올 뉴 싼타페’...대형 테일게이트 적용 넓은 공간

현대자동차가 최근 대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올 뉴 싼타페’ (사진)의 디자인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싼타페는 2018년 4세대 출시 이후 5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5세대 모델이다.

자연과 도시를 연결하는 1세대 싼타페의 디자인 콘셉트를 계승하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통해 도심과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완성됐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우선 싼타페의 외관은 각진 형태의 강인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휠베이스와 넓은 테일게이트에서 비롯한 희귀한 분위기로 강한 존재감을 표현했다.

현대차는 싼타페에 엠블럼을 상징적인 형상으로 재해석한 H 형상의 디자인을 곳곳에 반영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디자인은 차량 전면과 후면에

있는 H 라이트다. 전면에는 헤드램프와 좌우 헤드램프를 수평으로 길게 연결하는 램프에 적용됐다. 후면에는 리어램프에 H 라이트를 반영해 전면과 통일감을 주는 동시에 싼타페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갖췄다.

측면은 대형 테일게이트를 중심으로 공간에 의해 재정의된 독창적인 유형, 대담한 루프라인과 날카롭게 디자인된 휠 아치, 길어진 전장파와 짧아진 프런트 오버행, 21인치 휠 등이 어우러져 견고한 느낌을 준다.

후면은 존재감을 발휘하는 H 라이트와 함께 깨끗하고 단단한 이미지를 통해 절제된 조형미를 강조했다.

싼타페의 실내는 언제 어디서든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넉넉한 거주 공간을 자랑하며 수평과 수직 이미지를 강조한 레이아웃으로 의

자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싼타페에는 실내 디자인의 공간성과 개방감을 외장까지 확장하는 테라스 콘셉트의 대형 테일게이트가 적용됐다.

고객 가치가 가장 집약되는 대형 테일게이트 공간은 넓은 실내 공간과 함께 테라스에 있는 듯한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며 2열과 3열 시트를 완전히 접을 경우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싼타페는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지속가능성을 구현하고자 했다. 스웨이드 헤드라이너, 바닥 매트, 2열과 3열 시트백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소재를 적용했으며, 크래시 패드, 도어 트림 커버 등은 친환경 인조가죽을 사용해 제작했다.

한편, 현대차는 오는 8월 10일 온라인을 통해 싼타페의 주요 사양, 제원 등을 최초로 공개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기아, 2024 호주오픈 ‘볼키즈’ 모집

### 기아차 보유 고객 자녀·손자녀 중 만 12~15세

기아는 오는 8월 21일까지 ‘2024 호주오픈’에서 활약할 ‘볼키즈’ (Ball Kids)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선발된 볼키즈는 2024년 1월 15일부터 1월 28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2024 호주오픈’에 참가해 경기 중 볼 수급, 선수 지원, 코트 관리 등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기아는 최고 수준의 권위를 자랑하는 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호주오픈의 가장 오래된 후원사로서 2002년 대회부터 22년간 후원을 이어왔

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볼키즈 선발이 중단된 2021년~2023년 대회를 제외하고, 2004년 대회부터 매년 20명의 대한민국 대표 볼키즈를 선발하고 있다.

기아의 자동차를 보유한 고객(구매·장기렌트·리스·중고차 포함)의 자녀·손자녀 중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12~15세(2008년 1월 2일~2012년 1월 1일 출생)의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적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볼키즈 선발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http://www.kiaballkids.com>)에서 가능하며 볼키즈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점검하는 영어 능력 평가와 테니스 규정 관련 지식 및 운동 신장을 확인하는 실전 능력 평가를 거쳐 20명의 볼키즈가 최종 선발된다.

최종 선발된 20명은 역할 수행을 위한 트레이닝과 현지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2024 호주오픈의 볼키즈로 활약한다.

기아 관계자는 “4년 만에 볼키즈를 선발하는 만큼 호주오픈뿐만 아니라 현지의 문화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지 도시 관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테니스를 사랑하는 국내 청소년에게 최고의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수해 차량 점검 받으세요

### 벤츠코리아, 8월 31일까지 무상점검...렌터카 제공 등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장마철 폭우로 인한 수해 차량 고객에게 긴급 지원 서비스를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차량 침수,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등 피해를 겪은 메르세데스-벤츠 고객들에게는 무상점검 서비스가 기본으로 제공된다.

이밖에 보험수리 고객의 자기부담금 지원,

수리 기간 렌터카 제공, 픽업엔 딜리버리 서비스 무상 제공, 에어케어 서비스, 1년 후 무상 재점검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긴급 지원 서비스는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77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한국토요타, 내달 31일까지 엔진룸 등 14가지 항목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오는 8월 3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침수 및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전국 렉서스 및 토요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침수피해 차량 특별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수해 고객은 엔진룸, 배터리, 브레이크 관련 부품, 차량 내·외부 점검 등 빗물 유입과 관련된 총 14가지 항목을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다. 또 침수피해로 인한 유상 수리 시 최대 300만원까지 부품 및 공임의 30% 특별할인이 주어지며, 보험 수리 시에는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폭우로 인해 차량의 전손처리 판정을 받은 렉서스 및 토요타 고객 대상 재구매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캠페인 기간 중 신차를 구매할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고객에게 신속한 차량 인도도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고객의 원활한 일상을 돕기 위해 신차 인도 전까지 렌

터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의 리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고객의 차량이 전손처리 판정을 받은 경우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를 통해 재구매하게 되면 기존 차량의 중도 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강대한 한국토요타자동차 상무는 “기술적인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렉서스·토요타 고객을 위해 긴급하게 특별지원 캠페인을 마련하게 됐다”며 “침수차량은 전문가의 점검 및 차량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고객의 안전을 위해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꼭 방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지난 18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전국 수해 지역 피해 복구와 수재민 돕기를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금호타이어, 휴가철 무상 점검 서비스

### 27~29일 고속도로 휴게소 4곳

금호타이어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여름 휴가를 떠나는 고객들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타이어 무상점검 서비스 및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평(춘천방향), 여주(강릉방향), 정안(안남방향), 함안(순천방향) 등 전국 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해당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금호타이어 전문가들로부터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점검, 밸런스 점검 등의 타이어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타이어 안전관리요령 안내 및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방문 고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금호타이어 전기차용 신제품 ‘마제스

티9(Majesty9) EV SOLUS TA91’, ‘크루젠(CRUGEN) EV HP71’, ‘엑스타(ECSTA) EV PS71’ 등에 대한 제품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해당 제품 모두 전기차 특성에 맞게 전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주행성능, 승차감까지 고려한 전기차 전용 타이어이다. 낮은 회전저항, 고하중 지지, 저소음, 고출력에 따른 순간 반응속도 등을 완벽하게 갖추며 전기차 성능을 최적화했으며, 특히 연진소음이 없는 전기차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공명음) 감소 효과를 극대화한 금호타이어 고유 기술인 K-Silent를 적용했다.

최준성 금호타이어 품질서비스팀장은 “금호타이어는 매년 고객들의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휴게소에서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장거리 운행전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타이어 점검을 받아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